

보도자료

| | |
|------|--|
| 보도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10:00 |
| 배포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14:00 |
| 배포부서 | KDI 홍보팀(044-550-4050, press@kdi.re.kr) |
| 담당자 |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044-550-4011, yskoh@kdi.re.kr) |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 일 시: 5월 26일(금) 09:30 ~ 13:00
- 장 소: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B1F)
- 주 최: KDI, 세계은행그룹

- KDI는 5월 26일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출판 최종 보고회를 개최
 - KDI와 세계은행그룹은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살펴보고,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
- 『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30년간의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조망, 1990년대 고소득 경제 체제로의 전환 사례를 분석, 아시아 금융 위기 영향을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실용주의(pragmatism),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특징지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미래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힘.

○ 마라 워릭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이 환영사를 맡고,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축사로 참여

□ 이번 보고회는 칼레드 엘아타르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차관이 기조연설, 소훈섭 세계은행 거시경제·무역·투자국 부국장이 ‘혁신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의 성공사례’ 세션 발제에 참여해 이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설명

○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와르 아리디 세계은행 금융 경쟁력·혁신국 선임 민간부문 전문가가 사회를 맡고, 자피 무스타파오글루 세계은행 금융·경쟁력·혁신국 부국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두디 히다얏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처 연구·기술혁신정책수립국장, 칼 린든 파콜로 필리핀 통상산업부 경쟁력·혁신부장이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

❖ 첨부 1. 세부 프로그램

❖ 첨부 2. 보고서 주요 내용(국문 요약)

❖ 별첨. 현장 사진(5월 26일(금) 10:00 배포)

❖ 첨부 1. 세부 프로그램

| 시 간 | 내 용 |
|-------------|---|
| 09:30-09:50 | 개회식 개 회 사 조동철 KDI 원장 환 영 사 마라 위릭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 축 사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
| 09:50-10:05 | 기조연설 기조발제 한국의 개발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과 인사이트 칼레드 엘아타르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
| 10:05-10:20 | 휴 식 |
| 10:20-11:50 | 혁신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의 성공사례 발 표 소훈섭 세계은행 거시경제·무역·투자국 부국장 토 론 안와르 아리디 세계은행 금융·경쟁력·혁신국 선임 민간부문전문가 자피 무스타파오글루 세계은행 금융·경쟁력·혁신국 부국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디 히다얏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처 연구·기술혁신정책수립국장 칼 린든 파콜로 필리핀 통상산업부 경쟁력·혁신부장 |

❖ 첨부 2. 보고서 주요 내용(국문 요약)

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I. 개요

-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는 그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모델 (developmental state model)’의 한계를 노출
 - 정부는 그동안 시장을 직접 지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혁신을 지향하는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과 기술발전을 통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다고 분석
 - 한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1997년 (-5.8%), 1998년 ~ 2008년 (4.7%), 2009년 ~ 2021년 (2.9%)

II. 한국의 성장 원동력과 정책 및 제도의 전환

- (성장 원동력)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 인적·물적 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촉진, 경제개혁 등에 힘입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
 - (민간주도 경제) 1998년 이후 금융개혁, 시장개방 및 경쟁촉진, 중소기업 지원 등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
 - (글로벌 혁신·기술 선도국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대규모 R&D 투자에 힘입어 세계적인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국으로 성장
 - 1980년 ~ 2010년 제조업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1.7%p 기여

- (정책과 제도의 전환)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시장경쟁 촉진)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부문 개혁, 규제완화, 무역진흥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1997년 금융위원회법 제정, FDI 규제완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
 - (산업정책 전환) 기존 대기업 지원에서 혁신과 기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기반 창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2005년 한국벤처투자 설립, 2015년 광대역 기반망 완성 등

III.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 (장기적 성장기반)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민간의 제조업 수출 촉진,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장기간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줌.
 - 아시아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 거시경제의 취약점에 대한 중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 그 결과 경제 회복력이 강화
 - 제조업 수출확대는 정부의 리더쉽, 유능한 관료,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무역 인프라의 디지털화 등을 기반으로 촉진
 - 개도국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에 대한 성장 추구가 바람직
 - 한국의 경험은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인적·물적 자원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함을 시사
- (시장주도 성장 패러다임)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 공공, 노동부문을 개혁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한 것은 기업지원정책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남김.

- ① 고위기술 R&D 및 기술 스타트업 지원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② 경쟁당국 역할을 확대하여 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경쟁 촉진, ③ 중소기업지원을 다양화 하되 효과적인 평가체제를 도입, ④ 중소기업정책은 디지털화 지원 및 디지털 경제 촉진을 강조

□ (혁신 및 기술 촉진) 한국의 경험은 혁신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초기 투자가 막대한 이익을 준다는 교훈을 시사

- 개도국은 한국과 같이 발전 초기부터 R&D 역량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연구 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R&D 민관협력을 고려할 필요

□ (교육받고 훈련된 인력양성) 한국은 STEM 교육¹⁾ 등 인적자원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개발정책 등과 연계·조정

- 금융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 계약을 이뤘으나, 보다 폭 넓은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은 산업화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들이 빈곤 감축과 공동번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개도국은 교육 및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성장 촉진을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1) STEM 교육: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를 융합한 통합 교육